



**SEASON OF
CREATION**

창조시기 안내 자료집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



목차

| | |
|---|----|
| 에큐메니칼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 | 4 |
| 2024 창조시기 주제 및 상징 | 13 |
| 2024 창조시기 기도 | 16 |
| 창조시기를 기념하는 아이디어 | 17 |
| 9월 1일 주일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 18 |
| 에큐메니컬 기도회를 주최하십시오 | 19 |
| '창조세계의 거룩한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 20 |
| 창조세계 산책 혹은 순례를 계획하십시오. | 21 |
| 지역 교육 및 지속 가능성 활동과 연계하십시오 | 21 |
| 희망의 첫 열매 상징을 행사에 활용하십시오 | 22 |
|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 22 |
| 사진 및 동영상 | 22 |
|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 | 22 |
| 옹호활동: 화석 연료 사용 줄이기 캠페인 참여하기 | 23 |
| 국제 행사 일정 | 24 |
|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온라인 기도회 | 26 |
| 9월 21일: 옹호 행동의 날 | 26 |
|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 27 |
| 창조시기 소개 | 28 |
| 역사 | 28 |
|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 | 29 |
| 도움 주신 분들 | 30 |
| 부록 1: 에큐메니칼 기도회 | 31 |
| 부록 2: 행사 및 기념행사에 상징을 통합하는 방법 | 41 |
| 부록 3: 올해의 주제와 상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포인트 | 43 |

안내

환영합니다!

올해의 창조시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특별한 에큐메니칼 연대의 시기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리스도교 가족은 우리의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는 이 전 세계적인 기념일을 위해 연대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창조를 거룩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정하며 창조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돌보는 협력자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전세계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로써, 우리는 창조세계를 돌보라는 공동의 요청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피조물이며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지구의 행복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동의 집과 그곳에 함께 사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기뻐합니다.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는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입니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세 가지 지구적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환경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믿음에서 비롯된 희망, 즉 부활의 희망을 들어 올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희망은 행동이 없는 희망이 아니라 기도와 강론, 봉사와 연대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되는 희망입니다.

올해 창조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의 중단을 촉구하는 '화석 연료 비확산 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을 지지하는 공동 옹호 발의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여러분이 올해 창조시기에 대해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기도회(부록 1 참조)를 포함한 기도를 위한 아이디어와 올해의 주제와 상징을 구체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의 중단을 촉구하는 화석 연료 비확산 조약을 지지하는 올해의 공동 옹호 발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합니다(자세한 내용은 fossilfueltreaty.org에서 참조). 웨비나와 기도회, 홍보 예시 자료, 창조시기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등 더 많은 자료는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받으려면 SeasonOfCreation.org를 방문하십시오. 이번 창조시기에 함께 기도하고, 경축하고, 희망과 행동으로 창조세계를 옹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시기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 위원들





에큐메니칼 교회 지도자들의 초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 여러분,

창조시기는 전 세계 에큐메니칼 가족이 하나되어 우리 공동의 집, 곧 하느님의 집 (오이코스 Oikos)에 귀 기울이고 돌보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창조의 부르짖음에 함께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연례 축제입니다.

이 경축의 시기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인 9월 1일에 시작하여 많은 그리스도교 교파에서 사랑받는 생태분야의 수호성인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에 막을 내립니다. 올해는 로마서 8장 19~25절에서 영감을 받아 "희망의 첫 열매"라는 상징과 함께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라는 주제로 연대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의 에큐메니칼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올해 창조시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초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여정에서 에큐메니컬 가족에게 영감을 주기위해 자신의 묵상을 공유했습니다. 전 세계 도처의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세계와 함께, 창조세계를 위해 일하는 희망과 행동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를 위한 기도와 행동의 에큐메니칼 시기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표현한 그리스도교 가족의 신앙 지도자들이 이 특별한 시기에 우리에게 하는 초대의 말을 소개합니다.



“



"아무리 부정하고 숨기며 위장하거나 상대화하려고 하여도, 기후 변화의 표징들은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극단적인 현상들, 잦은 이상 고온, 가뭄 그리고 지구의 다른 부르짖음들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 우리의 집인 지구와 화해하고 지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이 순례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is Holiness Pope Francis, Bishop of Rome, Roman Catholic Church



"35년 전, 우리의 존경하는 전임자 디미트리오스 에큐메니칼 총대주교께서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특별 기도의 날로 정하고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최초의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그리스도교 교회와 신자들은 이 날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또는 '창조의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신념과 그리스도교적 일치인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 긴밀히 협력하지 않고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 보호는 공동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His All-Holiness Ecumenical Patriarch Bartholomew, Holy Orthodox Church



“



"기후 위기에 직면하여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의무입니다. 창조시기는 지구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기도와 행동으로 함께 모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회는 정교회의 리더십에 영감을 받아 이 에큐메니칼 시기를 열렬히 지지합니다. 전 세계 성공회 신자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보호하고 새롭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의 일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Most Revd Justin Welby, Archbishop of Canterbury, Anglican Communion



"크라쿠프에서 열린 제13차 총회(2023년 9월)에서 루터교 세계연맹은 지속적인 개혁의 교회로서, 우리는 사람과 국가,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구 기온의 끊임없는 상승은 생물 다양성, 생명, 생태계, 공동체 전체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행동의 요청을 인정하며, 오직 믿음에 기초해서만 이에 응답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창조시기는 힘과 친교의 원천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Rev. Dr. Anne Burghardt, Lutheran World Federation General Secretary.
Photo: LWF/A. Danielsson



“



"2016년 세계감리교협의회는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시기'를 기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시기는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청이 처음 기념했으며, 현재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경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오랫동안 하늘과 땅을 황폐화시킨 후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아들과 딸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태적 귀향은 성령의 간구를 통해 어머니 지구와 '함께 걷는'(시노달리타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섭리를 간절히 기다리

며, 시노드 교회로 쇄신하는 에큐메니칼 봄을 위한 새로운 때(카이로스)에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대지로서의 피조물, 산파로서의 성령, 하느님의 입양된 자녀로서의 신자들의 거룩한 신음이라는 세 가지 '우주적' 순서를 통해 산파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사도 바오로와 함께 경축합시다!

Rev. Dr. Jong Chun J.C. Park, World Methodist Council President



"기후 변화와 재난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처럼 지구는 곤경에 처해 있으며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지구를 돌보고 지탱하는 책임감 있는 관리자이자 시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위해 더 나은 세상,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갈망하는 행동하는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 세계 보호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Rev. Prof. Dr. Jerry Pillay, General Secretary, World Council of Churches



“



"우리는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맡기
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계속 보호해
주는 창조 세계를 망쳐가며 창조주를 실망시
켜서는 안 됩니다. 탐욕과 이익에 대한 욕망
에 눈이 멀어 창조 세계에 고의로 피해를 입
히는 행위에 대해 이제 그만 멈추라고 말해야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
는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개인은 물론 기
업의 일상적인 문화와 행동 패턴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
합니다."

Prof. Michel Abs, Secretary General, the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조
직적인 방식으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한 지역사회를 지원하
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Rudelmar Bueno de Faria, General Secretary, ACT Alliance



“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청은 1989년 처음으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에큐메니칼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는 창조세계의 "간절한 갈망"과 인류의 "참을성 있는 희망"(로마서 8,19.25)을 반영하여 창조세계 보호를 위해 열정적이고 인내심 있게 옹호해 왔습니다." 창조세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응답하는 것은 더 이상 사치나 트렌드, 의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주민들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Rev. Dr. John Chryssavgis, Executive Director, Huffington Ecumenical Institute at Hellenic College Holy Cross Greek Orthodox School of Theology



"창조시기는 교회가 하느님의 세상을 돌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꼭 함께하세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그리고 다같이 기도하고 행동을 취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Dr. Ruth Valerio, Director Global Advocacy and Influencing, Tearfund





"이번 창조시기에 저는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을 돌보고 천연 자원을 보존하며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창조세계가 하느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창조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Seth Appiah-Kubi, National Director, A Rocha Ghana

”

우리의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환경주의나 기술주의적 대의가 아니라 보다 총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인간적이고 영적인 비전이자 통합생태학의 문제입니다. 기도와 실천적 옹호, 지속 가능한 행동을 통해 이번 2024 창조시기는 에큐메니칼 연대와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을 예언자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희망의 첫 열매를 맺는 이 위대한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친교를 나누며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라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존중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창조시기 자문위원회 위원

Bishop Marc Andrus, Anglican Church, Episcopal Diocese of California

Rev. Dr. Dave Bookless, Head of Theology, A Rocha International, Lausanne Global Catalyst for Creation Care

Dr. Celia Deane-Drummond, Director, Laudato Si' Research Institute, Campion Hall, University of Oxford

Rev'd David J.M.Coleman, Environmental Chaplain, Eco-Congregation Scotland

Dr. Hefin Jones, Executive Committe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Metropolitan of Zimbabwe Serafim Kykotis, Greek Orthodox Archbishopric of Zimbabwe and Angola

Sr. Patricia Murray, Executive Secretary, International Union of Superiors General

Sr. Alessandra Smerilli, Secretary, Vatican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Paulo Ueti, Theological Advisor & Latin American Regional Director, Anglican Alliance & United Society Partners in the Gospel, Theological Advisor and Regional Manager for the Americas

Bishop Graham Usher, Anglican Church, Church of England lead Bishop on the Environment

Dr. Ruth Valerio, Director Global Advocacy and Influencing, Tearfund

Derrick Weston, Theological Education and Training Coordinator, Creation Justice Ministries

Secretary General, Consilium Conferentiarum Episcoporum Europae

Prior of Taizé



2024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

매년 창조시기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는 창조시기의 주제를 제안합니다.

2024년의 주제는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이며, 상징은 로마서 8장 19 - 25절에서 영감을 얻은 "희망의 첫 열매"입니다.

올해의 주제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창조세계를 대문자 (Creation)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창조세계가 인간을 위해 창조된 대상이 아니라 동료 피조물로서 함께 관계하고 협력하도록 부름받은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창조세계(Creation)를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우리는 창조 질서와 하느님의 지속적인 창조 행위의 신비를 모두 지칭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창조세계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전체 창조질서 또는 전체 우주를 인정하며, 이는 자연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존중, 경외심, 책임감, 상호의존성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올해의 주제와 상징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부록 3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가 해산의 진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로마서 8.22 참조).

이 성경적 이미지는 출산할 때처럼 신음하는 어머니로서의 지구를 묘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구를 창조주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할 자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를 잘 이해하여 『피조물의 찬가』에서 지구를 우리의 자매이자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구를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어머니 지구가 우리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지구를 해치는 지속 불가능한 행위로 인해 창조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인 어머니 지구와 함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생물은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상실, 인간의 고통뿐 아니라 창조세계의 고통을 초래하는 우리의 파괴적인 행동의 결과로 인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희망한다는 것은 가만히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위해 신음하고 부르짖으며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할 때처럼 우리는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겪지만 새로운 생명은 태어납니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로마서 8,19)

창조세계와 우리 모두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적극적인 희망과 행동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조세계와 함께 일할 때만이 희망의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 신학은 창조세계와 인류가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되었으므로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창조세계는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자신을 겸손한 피조물로 인식하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며, 동시에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창조주를 향해 손을 뻗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세계는 인류가 이용하고 남용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며 인류는 창조세계의 일부로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세계는 공동의 집을 넘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우주적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본질적인 소명으로 정의의 나라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로마서 8,19 참조)

희망의 첫 열매 (로마서 8,23-25)

희망은 소멸의 자연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느님께서 허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직 희망을 통해서만 우리는 충만한 자유의 선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유는 즐거움과 번영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와 책임이 있는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기셨음을 알기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지구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적, 생태학적 죄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구와 모든 피조물에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 창조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인 꿈을 이루려는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로마서 8,22 참조).

"희망에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는데, 그 이름은 분노와 용기입니다.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이고 용기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는 용기입니다." 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와 모든 피조물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목격할 때, 거룩한 분노는 희망적



용기와 정의를 위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하느님 아들의 육화가 고난에 처한 세상을 직면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살고 있는 세상의 도전에 대응하려는 노력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로마서 8, 23 참조).

희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닙니다. 마법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행동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믿음입니다(로마서 8, 24 참조). 희망은 혼자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앞부분에서 성장 과정과 희망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로마서 5, 4). 인내와 수양은 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내와 수양은 희망으로 이끄는 자질입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를 제어하기 위한 대담한 행동이 얼마나 시급한지 알고 있으며, 인간은 생각과 마음,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완고하기 때문에 생태적 전환이 더딘 과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으며 긴박함과 느린 변화의 리듬 사이에서 더 나은 균형을 찾습니다.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하느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온 우주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신뢰하고 따르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로마서 8, 25 참조).

일부 언어에서는 바오로서간의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희망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희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참조: 로마서 8,20-21).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을 품고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문화와 국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포르투갈어 동사 '에스페란사르 esperar'와 스페인어 '에스페란자르 esperar'는 피상적인 긍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희망을 적극적인 동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에서는 이 개념을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태도를 연상시키는 "에스쁘아 espoir"와 하느님의 빛에 비추어 적극적인 희망을 표현하는 "에스페랑스 espérance"가 그것입니다. 아랍어에서도 "아말(أمل)"과 "라자(رجاء)"를 구분하는 동일한 뉘앙스가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가 "희망"에 대해 말할 때 의미하는 바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 창조시기 기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 안에서
저희가 사랑과 양분, 보금자리와 보호를 얻으며
우주의 한 가족으로 공동의 집에 살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다양성 안에서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니 찬미받으소서.

그러나 저희는 지구를 당신 모성의 선물로 여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탐욕, 경시와 남용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손실,
저희 동료인 모든 피조물과 인류의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지구의 탄식과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저희 안에 살아 계신 희망과 정의의 영이
탄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 창조의 영으로 저희의 나약함을 도와주시어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과 희망을 알게 해주소서.
성령의 탄식으로 저희 안에
당신을 충실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어
창조세계의 탄식에 귀 기울이며 치유하게 하시고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여
희망의 첫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사랑의 창조주 하느님,
저희가 탄식의 소리에 깨어 있게 하시어
당신의 모상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구원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지니신 똑같은 연민의 마음으로
지구와 저희와의 관계 그리고 저희 서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소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창조시기를 기념하는 아이디어

창조시기는 경축, 회심, 헌신을 통해 창조주 및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기입니다. 매년 초교파적으로 진행되는 이 시기는 우리가 공동의 집을 위해 그리스도인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올해 초에 창조시기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 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열리는 창조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창조시기를 준비하면서 이벤트 보다는 교회일치의 정신으로 경청을 함양하고 공동의 집을 위한 예언자적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공동피조물이며 창조세계의 보호자로서 우리의 책임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생태영성으로 강화된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기를 기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시기 에큐메니칼 네트워크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와 캠페인을 보려면 SeasonofCreation.org를 방문하세요.



9월 1일 주일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혹은 창조의 축일로 알려진 9월 1일은 앞으로 이어지는 창조시기에 더큰 영감을 주고 자양분을 불어넣어주는 큰 경축 행사입니다. 이 날은 정 교회의 풍부한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이후 대부분 다른 교회도 받아들였습니다. 이 축일은 선물로 받은 창조세계를 파괴한 죄를 회개하는 시기일뿐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을 기리고 우주 창조의 위대한 신비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축일의 역사와 상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다시 말해, 이날은 단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창조된 세상으로서 창조세계'를 기념하는 것이 라기보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적 신비로서의 창조세계'를 기념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이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올해는 9월 1일이 주일에 해당하므로 교회나 공동체에서 창조의 신비와 축제를 주일 전례에 포함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입니다. 주일이 '창조의 날'(창세기 1장에 따라 하느님께서 창조 행위를 시작하신 '일주일의 첫 날')이자 '부활의 날'이라는 이중적 상징성을 공동체에 상기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고려할 몇 가지 아이디어(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선택 가능)를 소개합니다:

주일 미사 중:

- 창조세계의 거룩한 대성전'인 야외에서 미사를 거행합니다.
- 시작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예: 에큐메니칼 총대주교와 교황 등 지도자들의 연례 메시지) 또는 자신의 신앙고백 전통과 가장 관련이 있는 다른 문서를 발췌하여 이 날의 중요성을 상황에 맞도록 읽어보십시오.
- 참회예절을 할때(고백의 기도로 알려진) 생태위기에 대한 애도와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거슬러 지은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 만약 야외에서 한다면 다른 피조물의 '찬미의 노래'를 관상하는 침묵의 시간을 적어도 한번 이상 포함하십시오
- 그 밖에 다른 전례적 행위를 통해 창조세계를 경축에 포함하십시오. 예를 들어 예물 봉헌의 하나로 빵과 포도주와 함께 제단으로 가져갈 자연의 상징물을 포함하십시오.
- 사제나 사목자가 강론에서 창조의 축일과 창조주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도록 권장합니다. (예시자료)
- 보편지향 기도 중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언급하는 기도 지향을 하나 이상 포함하십시오.



주일 미사 전후에 할 수 있는 제안들 :

-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느님의 천지창조를 상징하는 예술적 '창조 장면'을 만들어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성당 안이나 가까운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 창조시기 자료집을 보십시오.
- 9월 1일 정교회 저녁기도를 보십시오.

에큐메니컬 기도회를 주최하십시오

기도회를 주최하는 것은 이 시기를 기념하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드리는 기도회도 환영하지만, 이 시기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4 창조시기를 위해 개발된 에큐메니컬 기도문은 **부록 1**과 창조시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지역의 교구와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에 연락하여 성직자 또는 사목자에게 창조시기 기도회를 공동 주최하는 데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이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창조시기 웹사이트 링크나 자료집을 공유하고 이 시기에 대한 정보를 동봉하십시오.

올해의 주제에 비추어, 사회 정의, 평화 구축 혹은 원주민의 지혜인 수막 카와이(buen vivir)나 아프리카의 지혜인 우분투와 같이 지구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공동 행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들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안의 그룹과 개인의 요구와 참여를 의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 기도회를 광고하고 홍보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인쇄물, 웹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고 다양하고 역동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홍보 자료 샘플과 기타 유용한 자료는 공식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회에서 성직자 한 명 또는 성직자 그룹을 지정하여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합니다.



‘창조세계의 거룩한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세상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채워 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나뭇잎, 길, 이슬, 가난한 이의 얼굴에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무한한 사랑을 노래한다면, 어찌 그 세상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프란치스코 교황

하느님의 창조를 온전히 기념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느님의 창조세계를 배경으로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미 하느님을 장엄하게 경배하고 있고, 산과 강과 나무조차 창조된 존재로서 있는 것 만으로도 주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의미있는 장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이라면 하느님께 감사하고 그 장소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된 장소라면 우리의 환경적 죄를 고백하고 이 잃어버린 동료 피조물들의 목소리를 애도하며 치유와 회복을 위한 행동을 약속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미사 방식과 날씨에 따라, 이 기념 안내서에 제시된 **부록 1**의 에큐메니칼 기도문이나 다른 창조물 중심의 전례를 통합한 기도회나 말씀의 전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자연에서 상징물을 모아서 제대 앞을 장식하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물은 빵과 포도주와 함께 "땅의 열매와 인간의 손으로 일군 것"을 상징할 수 있으며,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피조물의 목소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창조세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순간을 포함시키고, 말없이 창조세계가 드리는 경배의 노래에 동참하십시오. 혹은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올 때 노래 대신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강론대신 그룹으로 나누어 짧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세계 산책 혹은 순례를 계획하십시오.

"우리가 끊임없는 낭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경건한 순례자가 아니라 부주의한 소비자나 지나가는 여행객으로 전락했습니다." - 전 세계 에큐메니칼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지극히 거룩한 에큐메니칼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하느님의 창조의 선물과 모든 생명과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위한 우리의 응답을 성찰할 수 있도록 야외 걷기 명상을 계획하십시오. 의미있는 생태 유적지나 생태적 또는 사회적 불의를 목격할 수 있는 장소로 순례를 계획하십시오. . 그룹을 초대하여 생태를 주제로 한 성경 구절을 공부하거나 창조시기 자료 웹페이지에서 제안하는 기도문과 같은 생태를 주제로 한 기도를 걸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순례의 마지막을 기도회 혹은 미사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교육 및 지속 가능한 활동과 연계하십시오.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합니다. 하나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목적과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은 창조세계를 잘 돌볼 책임을 창조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의 도덕적 위기는 목적과 기쁨을 찾고 창조주의 책임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을 줄이는 것은 신앙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 저스틴 웰비 목사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의 채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인식, 실천적 행동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돕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우리의 생활 방식, 소비 방식을 검토하고 지구의 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을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을 품고 행동하기 위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공동체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 나무 심기, 재활용 계획 도입, 마을 정원 지원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영화 상영이나 공개 대담과 같은 교육 행사나 에세이, 그림 그리기 대회, 콘서트와 같은 예술 행사를 주최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의 첫 열매 상징을 행사에 활용하세요.

창조시기 준비 여정에 희망의 첫 열매 상징을 활용한 활동과 공예품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아이디어를 준비했으며, 이 기념 안내서 마지막에 있는 **부록 2**를 참고하여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 상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러한 아이디어는 신앙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올해 상징이 희망과 행동을 위한 단결을 어떻게 고무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조시기 로고와 올해의 상징을 다운로드하여 자료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사진 및 동영상

공동체 활동 사진을 찍어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진은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되며 창조 세계 보호를 위한 기도와 행동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사진 공유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부모/보호자의 허락 없이 어린이를 촬영하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에 #SeasonOfCreation 해시태그 사용

행사를 계획하는 동안과 행사 기간 동안 이미지와 스토리를 게시하십시오. 게시물이나 트윗에 해시태그 #SeasonOfCreation과 함께 올리면 창조시기 웹사이트에 표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구 트위터)에서 SeasonOfCreation 창조시기의 공식 채널을 팔로우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창조시기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당신의 공동체의 창조시기 기념행사에 대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고 #SeasonOfCreation를 넣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옹호활동: 화석 연료 사용 줄이기 캠페인 참여하기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로마서 8, 22 참조). 우리는 매일, 매주, 매달 창조세계의 고통에 대해 보고, 느끼고, 듣습니다. 인류는 인간의 필요보다는 인간의 탐욕을 위해, 그리고 모든 생물과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채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의 풍부한 자원을 추출하고 사용합니다. 이러한 지속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손실이 심화되고 인간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예는 화석 연료의 추출과 사용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수목림이 나 툰드라를 태우는 연기이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슈퍼태풍의 끊임없는 영향이든, 아프리카 뿔(에디오피아, 지부티, 소말리아의 3개국을 포함하는 지역의 속칭. 역자 주)에서 수년간 지속되는 가뭄이든, 거대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가 생산하는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의 30%는 화석 연료의 추출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조세계를 위한 희망의 표징

창조시기는 지역 차원의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주고, 특히 연례 유엔 기후 회의와 같은 전지구적 차원의 행동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182개국이 모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같은 행동을 약속합니다. 작년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당사국 총회, COP28)에서는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의 필요성이 사상 처음으로 의제로 채택되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합의는 미약했고 지구 온난화를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면 더 강력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이라고도 불리는 화석연료 추출 및 사용 감축은 올해 기후 회의인 COP29에서 다시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는 종종 정의로운 전환과 연계되어 가능한 한 공정한 방식으로 단계적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저개발국이 경제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부유한 국가들이 화석 연료 사용과 추출을 의미 있게 줄이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된 다양한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더 강력한 단계적 퇴출을 위한 외침에 힘을 보탬 수 있습니다.

동참하세요: 화석연료비확산조약 지지

올해 창조시기는 본당과 종교 단체가 화석연료비확산조약(FFNPT)에 동참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조약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 시민 사회, 종교 단체가 힘을 모으는 조약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 발의는 모두를 위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석탄, 석유 및 가스의 확장을 종식하며,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이 보여주는 바에 따라 기존 생산을 공정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지구적 노력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9월 21일은 개인, 공동체, 단체, 모든 수준의 정부가 이 조약을 지지하기 위한 세계 행동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든 서명은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 변화에 관한 차기 유엔 회의인 COP29에서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교구 또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약에 대해 알리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지식이 풍부한 교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가가 지지를 요청하도록 독려하십시오. (faith_letter) 신앙 지도자와 교회 공동체는 FFNPT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석 연료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단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창조시기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옹호 활동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지구 온난화를 섭씨1.5도 이하로 유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권력에 진실을 말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세계에 희망의 첫 열매를 맺도록 돕고 사랑과 힘을 키웁니다. 옹호 활동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와 유용한 도구는 SeasonOfCreation.org의 [리소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옹호하고 FFNPT를 지지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 인식 개선

신앙인들이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FFNPT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대담과 서명 이벤트를 개최하여 사람들이 FFNPT에 대한 이해를 돕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SeasonOfCreation.org의 [리소스 페이지](#)에 있는 옹호 활동 가이드라인에 제공된 도구를 사용하거나 FFNPT 웹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 창조시기 국제 행동의 날에 참여하기:

9월 21일 각 공동체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FFNPT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종교 공동체의 기도회, 공개 행동, 철야 집회 또는 종교 지도자와 함께 정치 지도자들에게 조약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십시오.

- 옹호 활동 공유하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구 트위터\)](#) 페이지에서 창조시기 캠페인을 팔로우하고, [#SeasonOfCreation](#)을 사용하여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우리의 옹호 요청을 널리 알리십시오. 소셜 미디어에 게시할 때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면 여러분의 활동이 창조시기 웹사이트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창조시기 웹사이트의 리소스 페이지](#)에서 커뮤니티나 단체에서 정부와 종교 지도자들이 화석연료금지조약을 지지하도록 촉구하는 창조시기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유용한 도구에 대한 전체 옹호 활동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십시오.



국제 행사 일정

전 세계의 각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창조시기를 기념하지만, 몇 가지 이벤트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창조시기 웹사이트의 국제 행사 일정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창조시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두 차례의 온라인 기도회와 아래 설명된 옹호 행동의 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온라인 기도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혹은 창조의 축일이라고도 불리며 매년 창조시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저스틴 웰비 대주교, 세계교회협의회 및 기타 많은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이 날을 축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교인들은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공동의 대의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SeasonOfCreation.org 와 소셜 미디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1일: 옹호 행동의 날

올해 우리는 옹호에 관한 에큐메니칼 공동의 행동 요청에 집중하는 특별한 날을 맞이합니다. 화석연료비확산조약(FFNPT)을 지지하는 행동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 79차 유엔 총회는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촌 가족으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전 세계의 정의와 희망을 위한 강력한 행동자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의 이전 섹션 '옹호활동'을 참조하십시오.: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기"에 대한 이전 섹션 또는 SeasonOfCreation.org의 [리소스 페이지](#)에 있는 옹호 섹션을 참조하세요.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많은 전통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창조세계를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침을 주는 분으로 여깁니다. 10월 4일은 성인의 기념일이자 창조시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 세계 신자들은 창조시기 에큐메니칼 청년 위원회가 준비한 온라인 이벤트에 모여 한 달간의 여정을 함께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창조시기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조시기 소개

창조시기는 해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어집니다. 전 세계 22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 동안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라고 초대받습니다. 창조시기를 통하여 전 세계 그리스도교 가족은 같은 목표 아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역사

1989년에 동방정교회 총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께서는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2001년에 유럽의 다른 주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이를 수용하였고,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교 교회들은 9월 1일부터 가톨릭 교회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까지의 기간을 "창조시기"로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의 찬가"를 지었으며 생태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의 주보 성인입니다.



2003년 필리핀 가톨릭 주교회의, 2007년 시비우에서 열린 유럽 제3차 유럽 에큐메니컬 회의 및 2008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지난 몇 년간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자들에게 한 달 동안 계속 되는 이 기념 시기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 시기를 기념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세계교회협의회, 루터교 세계연맹, 찬미받으소서 운동, 성공회 환경 네트워크, 라우산느/세계복음주의연맹 창조관리 네트워크,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 중동교회협의회, 유로피아 기독교 환경 네트워크, ACT 연합, 아로차 인터내셔널, 세계감리교협의회, 크리스천 에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네트워크로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에서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대화"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롭고 보편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긴급한 요청에 영감을 받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창조시기 에큐메니칼 청년위원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창조시기 운영위원회 명단

Fr. Dr. Antoine Al Ahmar,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Dr. Louk Andrianos, World Council of Churches

Fiona Connelly, Act Alliance

Cecilia Dall'Oglio, Laudato Si' Movement

Rev. Henrik Grape, World Council of Churches

Rev. Dr. Eva Harasta, Lutheran World Federation

Rev. Sikawu Makubalo, Church Unity Commission

Rev. Dr. Rachel Mash, Green Anglicans/Anglican Communion

Environmental Network

Suzana Moreira, Laudato Si' Movement

Kim Nelson, Christian Aid

Rev. Peter Pavlovic, European Christian Environmental Network

Wilfer Rigamoto, 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Kuki Rokhum, A Rocha International



도움주신 분들

이 자료집의 개발, 검토 및 편집에 기여해 주신 다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Fr. Dr. Antoine Al Ahmar, 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Dr. Louk Andrianos, World Council of Churches

Rev. Dr. Dave Bookless, Head of Theology, A Rocha International, Lausanne Global
Catalyst for Creation Care

Fiona Connelly, ACT Alliance

Rev. Dr. Eva Harasta, Lutheran World Federation

Dr. Hefin Jones, Executive Committe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Rev'd David J.M.Coleman, Environmental Chaplain, EcoCongregation Scotland

Tomás Insua, Laudato Si' Research Institute at Oxford University

Christina Leañó, Laudato Si' Movement

Rev. Dr. Rachel Mash, Green Anglicans/Anglican Communion

Environmental Network

Rev. Sikawu Makubalo, Church Unity Commission

Dr. Lindlyn Moma, Laudato Si' Movement

Suzana Moreira, Laudato Si' Movement

Sr. Patricia Murray, Executive Secretary, International Union of Superiors General

Kim Nelson, Christian Aid

Kuki Rokhum, A Rocha International

Sr. Alessandra Smerilli, Secretary, Vatican Dicastery for Promoting Integral Human
Development

Paulo Ueti, Theological Advisor & Latin American Regional Director, Anglican Al-
liance & United Society Partners in the Gospel, Theological Advisor and Regional
Manager for the Americas



부록 1: 에큐메니칼 기도회

여러분에게 이 기도회 자료를 창조시기의 시작과 마침에 사용 하거나, 이 시기 동안 주최하는 행사나 창조시기 내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미사/예배/기도회에 접목하여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기도회를 계획할 때, 로마서 8장 19~25절에서 영감을 얻은 올해의 상징인 "희망의 첫 열매"와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라는 공동체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기도회 중에 "열매 또는 씨앗"을 보여주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또한, 땅이나 물에서 수확한 다양한 수확물과 사랑하는 창조세계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상징하는 자연물로공간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부록 2**에서 올해의 상징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글꼴은 주송자, 굵은 글꼴은 신자들의 응답입니다. 지침이나 참고 자료는 이탤릭체로 표시합니다.

여는 말

(이 여는 말은 올해의 창조시기를 기념하는 미사나 기도회를 구성하기 위해 적절한 소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제안입니다.)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 감소, 계속 늘어나는 환경오염에 대한 끊임없는 파괴적인 뉴스에 둘러싸여 우리는 쉽게 실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소망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아직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확신(히브리서 11, 1 참조)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투 대주교의 말을 빌리자면 "희망은 모든 어둠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보서 2,26)이듯이 행동 없는 희망은 무의미하며, 이 기도회에서 우리는 절망감을 인정하고 애도하며 믿음과 희망을 붙잡고 생명의 새싹을 위해 피조물과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기도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한 기도와 행동의 시기인 에큐메니칼 창조시기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올해 창조시기의 주제는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이며, 로마서 8장 19-25절에서 영감을 받아 "희망의 첫 열매"를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환영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 앞으로 올 세대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창조주 하느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보호자 성령께서는 찬미받으소서.

우리는 함께 모여 창조세계의 신음소리와 형제자매들의 부르짖음을 듣나이다.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인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함께 모였나이다.

(시카우 목사, 케이프타운 중앙감리교회)

인사

우리에게 생명과 창조세계를 선물로 주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하느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창조세계에 대해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정의를 위해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는 신음하는 피조물과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령과 함께 움직이며 정의를 세우고 희망의 첫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보장된 풍성한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천상의 삼위일체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나이다.

저희는 저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나이다.

당신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화해시키시나이다.

저희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현존 앞에 모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희망을 심어주시나이다.

(세계교회협의회, 그리스 크레타 정교회 아카데미 에코스쿨, 2023년 11월 11-18일)



시편42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
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
라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뵈올 수 있겠
습니까?**

사람들이 제게 온종일 “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
느냐?” 빈정거리니

낮에도 밤에도 제 눈물이 저의 음식이 됩니다.

**영광스러우신 분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이 축제의 무리와 함께
행진하던 일들을 되새기며**

저의 영혼이 북받쳐 오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내 안에서 신
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
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제 영혼이 안에서 녹아내리며

**요르단 땅과 헤르몬과 미츠타르 산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폭포 소리에 따라 너울이 너울을 부릅
니다.

당신의 파도와 물결이 모두 제 위로 지나갔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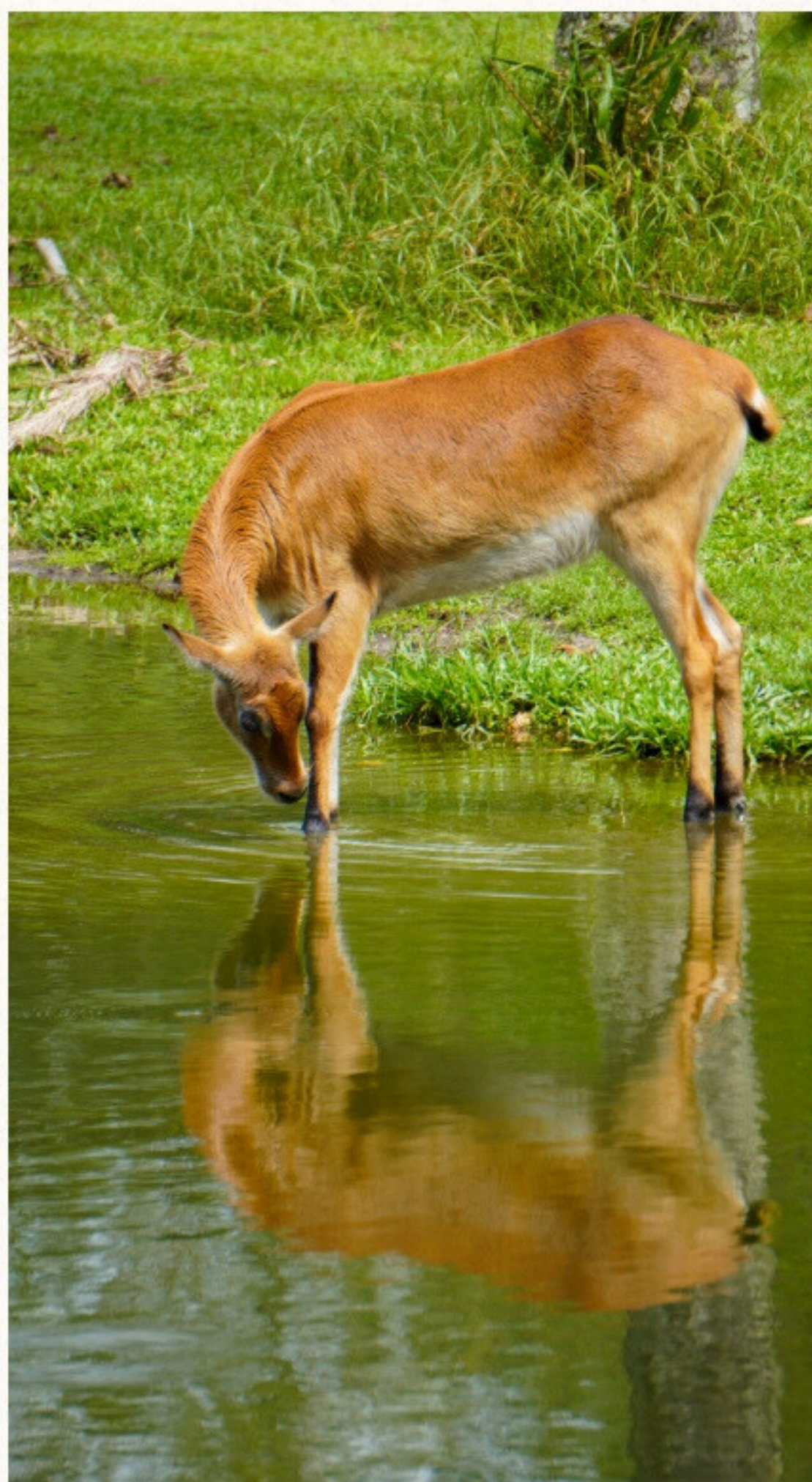
낮 동안 주님께서 당신 자애를 베푸시면

**나는 밤에 그분께 노래를, 내 생명의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네.**

내 반석이신 하느님께 말씀드렸네.

어찌하여 저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제가 원수의 핍박 속에 슬피 걸어가
야 합니까?



“적들이 ‘네 하느님은 어디 계시느냐?’

**온종일 제게 빈정대면서 제 뼈들이 으스러
지도록 저를 모욕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녹아내리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신음하느냐?

하느님께 바라라. 나 그분을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의 구원, 나의 하느님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자비송

영원하신 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저희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창조세계의 고통을 당신께 가져왔나이다.
당신의 은총으로, 당신께서 지으신 공동창작자인 저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지구위를 걸어다니셨고 저희 가운데 사셨습니다.
저희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정의와 연대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과
앞으로 살아갈 이들의 존엄함 삶을 만들기 위한 저희의 노력에 힘을 실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용기와 자제력을 주시는 성령이시여, 저희 양심에 말씀하소서.
저희가 고통을 받을때나 불안에 시달릴 때 저희를 위로하소서.
안일함의 평온함으로 무감각해질때 저희가 염려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를 재창조하시어 같은 하늘 아래 하나의 인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스웨덴 교회의 "기후를 위한 주교 서한"의 "기후를 위한 기도"에서 발췌)



지구를 위한 감사기도

거룩한 꿈의 하느님, 위대한 창조주, 성령이시여
당신께서는 창조의 새벽부터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지구의 좋은 것들을 주셨나이다.

당신이 말씀하시자 고무나무(혹은 유칼립투스)가 자라났나이다.

광활한 사막과 울창한 숲, 도시와 물가에서.
창조세계는 당신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나이다.
당신의 현존은 저희 땅의 중심부에 있는 바위를 지탱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나무에 매달리셨을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백성의 외침을 들으시고
죄수, 사냥꾼, 쫓겨난 자 등 상처 입은 이들과 하나가 되셨나이다.

당신 아들의 부활은 지구를 새롭게 물들이고
영광스러운 희망으로 가득 채웠나이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는 당신과, 저희 서로 서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창조물과 화해했나이다..

위대한 영이시여. 지구의 사방에서 모여 온 저희를 인도하시고
과거의 상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아온 새날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전례 자료)



말씀의 전례

각 독서 후에는 묵상을 위한 짧은 침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1독서 - 미카 7,1-4.7 (혹은 이사야 40, 27-31)

아, 슬프다!
나는 여름 과일을 수확한 뒤에 남은 것을 모으는 사람처럼,
포도를 딴 뒤에 지스러기를 모으는 사람처럼 되었건만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내가 그토록 바랐던 햇무화과도 없구나.
경건한 이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가운데 올곧은 이는 하나도 없구나.
모두 남의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고
저마다 제 형제를 그물로 잡는다.
그들의 손은 악을 저지르는 데에 이력이 나 있고
관리와 판관은 뇌물을 달라 하며
권력자는 제가 원하는 것만 지시한다.
이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그르친다.
그들 가운데 가장 좋다는 자도 가시덤불 같고
올곧다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 같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재앙의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에게 혼란이 일어나리라.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느님을 기다리리라.
내 하느님께서 내 청을 들어 주시리라.



제2독서 - 로마서 8,18-25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복음 - 마태오복음 9,35-38 (혹은 루카복음 12, 22-32)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성찰

주제에 대한 성찰: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와 "희망의 첫 열매"라는 상징.

창조를 주제로 한 성가를 여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한 분 하느님을 저희는 믿나이다.
하느님께서 온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나이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류의 특별한 역할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는 믿나이다.
저희는 창조세계를 위해 일하고 보호하는 가운데
지구의 신비와 능력을 이해하고
그 능력으로 지구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나이다.

온유하고 이타적이며 자비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저희는 믿나이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세대가 지구를 평화롭게 물려받고,
모든 피조물의 삶이 변화되며, 그 풍요로움이 정의롭게 공유될 수 있기를 청하나이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아멘.

(인도에서 각색. 출처: 신포니아 오에쿠메니카, 구터슬로허 출판사, 구터슬로 1998.
2003 창조시기 ECEN에서 재인용)

헌금과 예물 봉헌기도

생태 복원에 기여하는 특정 프로젝트나 단체 또는 기후정의를 위한 헌금을 하거나, 지역 서식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 식물이나 지역 동물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는 이 가이드의 마지막에 있는 부록 2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조를 주제로 한 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보편지향기도: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

땅, 바다, 하늘의 하느님,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시여,
 바다의 파도, 공기와 바람의 움직임, 모든 생명체의 숨결에 담긴 창조의 리듬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저희가 속해있는 생물다양성의 연약한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하소서
 저희 주변의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당신의 모든 창조세계와 맺는 깊은 관계에 대한 인식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창조주 하느님,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빛과 생명과 사랑의 하느님:
 모든 창조세계안에서 주님의현존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생태 위기의 뿌리를 이해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총명한 생명의 선물이 모든 창조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지켜주소서.
 당신 사랑의 통치가 당신과 저희 자신,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이웃에 대한
 저희의 보편적 사랑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창조주 하느님, 저희가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진리와 정의의 하느님,
 창조세계와의 연대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당신 연민의 영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땅을 부드럽게 밟고 바다를 조심스럽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의로움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소서.
 구조적인 착취와 수탈의 악에서 저희의 역할을 인식하고
 권력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생태적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팔에 힘을 주소서.

창조주 하느님, 우리가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아멘.

(제임스 바그완 목사, 태평양 교회협의회)



주님의 기도

원하는 언어로 기도하십시오.

평화의 인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전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인정할만하고 완전한 것을 행하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온 정신을 다해 열심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따릅니다.

우리들 서로서로와 모든 창조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합시다.

모든 이들과 평화롭게 살고 서로 평화의 표시를 나누도록 노력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과도 함께.

아멘.

강복

창조세계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님 영광받으소서.

저희의 신음과 울부짖음을 아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희망의 첫 열매를 주소서.

주님은 저희의 희망이시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총의 이슬을 뿌려주시고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록 2: 행사 및 기념 행사에 상징을 통합하는 방법

활동

- 올해 창조시기 주제와 상징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주제와 상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설명한 다음, 몇 분 동안 열린 대화나 소그룹 토론을 통해 사람들이 주제와 상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창조시기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싶은지 공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 당신의 지역공동체나 지역에서 지구의 열매 기념행사를 열고 다양한 연령,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 선물을 식탁에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참가자들에게 로마서 8장 19-25절을 바탕으로 짧은 촛극을 만들도록 초대하는 활동을 준비하십시오. 땅의 신음과 성령의 첫 열매를 희망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 창조시기 기념 안내서의 전례 자료를 사용하면서, 신앙의 조상들과 공동의 집을 지키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창조에 대한 희망과 행동의 산 증인이거나 그랬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기도의 시간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선주민, 신앙 지도자, 사회복지사, 사회 환경 정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화석 연료 산업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화석 연료 퇴출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재배하고 가꿀 수 있는 씨앗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공동체에서 이러한 씨앗을 신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도회나 미사가 끝날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희망의 첫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묵상하고, 내년 창조시기가 될 때까지 이 씨앗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공예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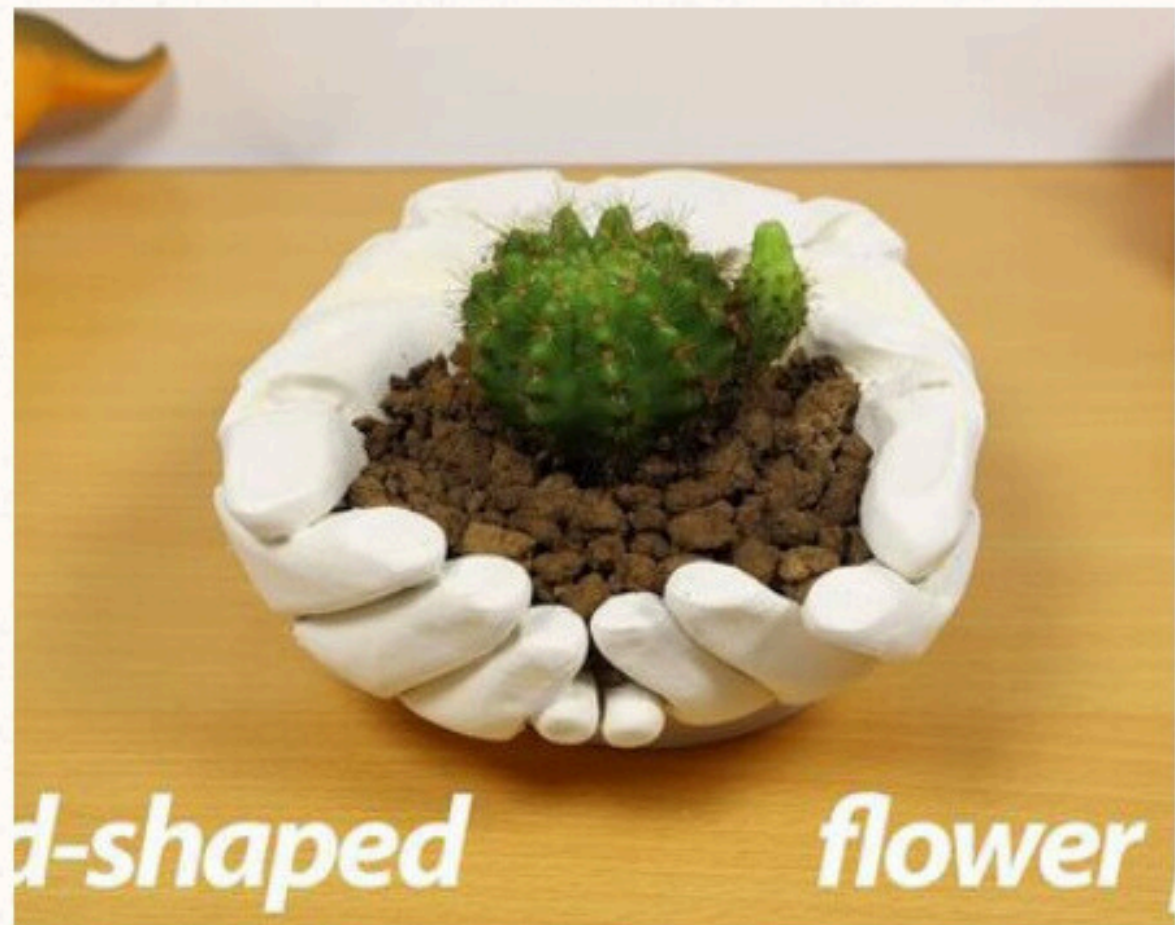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초대해 씨앗과 씨앗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물, 흙, 수분 매개자, 사람의 손길 등 지구의 모든 생물을 작은 모형이나 그림으로 만들어보도록 합니다. 아이디어는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창조시기가 시작될 때 지역의아이들에게 작은 콩(또는 쉽게 발아할 수 있는 씨앗)을 나눠 주고 물이나 면봉을 컵에 담아 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에게 콩을 기르고 발아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단한 지침을 알려주십시오. 창조시기 끝날 때 아이들에게 이 발아한 콩을 폐막미사(혹은 기도회)에 바치도록 초대하십시오



공동체 사람들의 손 모양의 점토 조형물을 만들어보십시오. 이 조형물은 올해의 심볼 로고처럼 한꺼번에 모양을 만들거나 각 손이 묘목을 들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다음 이미지를 참조하십시오.



올해의 심볼 로고와 올해의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씨앗과 기타 지속 가능한 재료만을 사용하여 재현하십시오. 씨앗을 사용하여 만든 다음 이미지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부록 3: 올해의 주제와 상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 포인트

희망의 다양한 차원

-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본성, 약속,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메타노이아, 생태적 회심, 지구와의 화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회심을 인도하는 분이시며, 우리를 우주의 가족이라는 완전한 관계로 더 깊이 인도하십니다.
- 인간과 지구, 인간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회복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 시스템을 바꾸려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 기후 변화로 인해 땅과 생계를 잃고 있는 지역 사회, 사라져가는 생물 종과 생태계, 채굴과 화석 연료 산업의 희생자 등 울부짖고 신음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적극적인 희망은 창조세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구의 울부짖음을 듣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은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행동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의 행동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기후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근거 있는 희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교적 희망은 변혁적 행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희망도 하나의 과정이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며,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모든 악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생명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 적극적인 희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희망의 첫 열매를 맺는 행동

- 희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은 씨앗과 같아서 인내심을 갖고 물로 키워야 자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씨앗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씨앗이 죽을 수도 있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다른 씨앗을 계속 심으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 희망의 첫 열매는 우리가 힘을 합쳐 모든 피조물과 함께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고, 온 우주의 평화로운 공존, 충실함, 정직함, 투명성을 키울 때 탄생합니다.
- 화석연료비확산조약(FFNPT)은 여전히 증가하는 화석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협정을 보완하는 국제적인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 발의입니다. 이는 희망찬 미래를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 FFNPT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 희망의 첫 열매로서의 행동은 옹호 캠페인, 지속 가능성 발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희망의 첫 열매는 우리가 공동으로 생각하고 일할 때, 우리가 창조세계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인식할 때,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선주민 자매와 형제들의 예언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의 첫 열매는, 멸종되어가는 여러 생물들과 여전히 살기 위해 분투하는 생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때,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다양한 종, 생태계, 생물군의 느끼고 힘찬 생명의 순환에서 배울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창조세계 및 모든 생물과 함께 일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도록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

-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려면 창조세계가 어떻게 신음하고 왜 신음하는지에 대해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행동을 추진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는 하느님의 계시의 일부이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희망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창조세계로부터 그리고 창조세계와 함께 배워야 합니다.
- 토착 그리스도교인들의 증언과 그들의 영성이 존중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교회는 지구나 창조세계에 대해 말하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지만, 토착민과 선주민에게 이는 우주적 세계관과 삶의 방식에 내재된 부분입니다.
- 화석 연료 산업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그린 워싱 캠페인을 벌이면서 창조 세계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산업은 실제로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 난민을 비롯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기후 변화와 채굴, 생태계 파괴로 쫓겨난 사람들의 외침을 무시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야 합니다. 작년에 열린 COP28에 참석한 대형 석유 회사들의 모습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 자원이 줄어들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전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기후 위기의 필연적인 결과는 더 많은 폭력이 될 것입니다. 자원의 공평한 공유 없이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 우분투의 아프리카 지혜는 자아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피조물을 돌보는 데는 우주적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이고, 자연은 우리이며, 우리는 세계와 우주의 정의를 위한 하느님의 손입니다.





SEASON OF CREATION

